

‘여의도떡방’, ‘모방 가수’ 운명 가른 기준은?



박 상 오 변호사의
콘텐츠 법률 산책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제2호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시설(혹은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가 무엇을 말하는지 문제된다. 애초에 상품표지나 영업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 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법령상의 정의를 살펴보면 상품표지는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를 의미한다.

영업표지는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이 포함된다. 이는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의 보호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이 2019년 개정될 때에 포함된 것이다.

이러한 타인의 성명 등은 단순히 개인이나 회사를 식별하는 수준을 넘어서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로서의 기능(즉, 출처표시기능)을 할 정도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실제 사례들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법원은 모방 가수가 다른 가수의 이름과 외양(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독특한 모양의 수염을 기른 스타일)을 사용해 나이트 클럽 등에서 모방 가수임을 밝히지 않고 립싱크(lip-sync)로 공연해 문제된 사안에서, 가수의 성명은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가수의 특징적인 외양과 독특한 행동 등은 ‘영업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법원은 상품의 형태가 상품표지가 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상품의 형태가 다른 유사상품과 비교해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갖고 있고, 일반수요자가 한 번 보고 특징의 영업주체의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출처표시기능을 가진 상품표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법원은 ‘여의도떡방’이라는 상호가 문제된 사안에서 ‘여의도’라는 부분은 널리 알려진 지명이어서 상품출처 또는 영업주체를 식별하는 요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떡방’이라는 부분도 떡을 제조·판매하는 곳이라는 의미의 보통명사 또는 관용문구에 불과하여 여기에도 상품출처 또는 영업주체에 대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는 데다가, ‘여의도떡방’에는 여의도에 소재하는 떡방을 지칭하는 의미가 내포돼 있으므로 ‘여의도떡방’이라는 상호 그 자체만으로 상품출처 또는 영업주체에 대한 식별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법원은 최근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고 있는 캐릭터(character)에 대해서는 캐릭터 자체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캐릭터에 대한 상품화 사업이 이뤄지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선전, 광고 및 품질관리 등으로 상품표지로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돼 있어야만 이를 상품표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를 제대로 보호하고 의도치 않게 타인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를 침해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그 첫 걸음으로서 각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위 내용은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여러 법리들 중 일부에 불과하지만, 이를 명확히 알아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무법인 바른

포용금융의 역설



기지 수첩
안 재 선 (금융부)

“실제로 금융사에 돈 빌리고 안 갚으면서 외제차 빌려 타고 다니는 사람들 많습다. 반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면서도 꼬박꼬박 대출을 상환하는 사람도 많습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포용 금융의 시각지대다. 포용 금융이란 이름 아래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할 제도가 오히려 엉뚱한 이득까지 감싸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채무자 보호 정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성실 상환자와 비성실 상환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부족하다고 본다. 장기 채무 탕감이나 채권추심 규제 강화가 필요한 측면은 분명하나, 의도적으로 채무자를 이

행하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포용 금융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범위를 어디까지 넓혀야 할지 모호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과정에서 건전성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출 심사 기준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 설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기준의 합리성 문제도 제기된다. 포용 금융으로 채무자 보호 기조가 강화되면서 채권추심 현장에서는 각종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추심 업무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면서 정상적인 채권 회수 활동까지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추심 업무의 경우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시간대를 벗어나 추심을 못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부업에서도 드라마에나 나올 법하게

추심을 강하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매입채권추심 허가제를 둘러싼 불만도 나온다. 또 다른 대부업체 관계자는 “허가제로 전환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허가 요건을 충족하기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취지만 내 걸 것이 아니라 포용 금융의 세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되 성실 상환자와 비성실 상환자를 선별해 지원할 수 있는 합리적 세부 기준이 특히 필요하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이들이 더 큰 혜택을 누리는 역선택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합리적이고, 세부적인 기준 마련뿐이다.

/wotjs4187@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2일 (음 5월 8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http://www.fortunetory.com)



48년생 예상되는 위험에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60년생 건강이 많이 악화됩니다. 72년생 돈을 좀 저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4년생 종합진단을 한번 받아 보세요.



49년생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61년생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기다려 보세요. 73년생 선배에게 대들지 말고 예의를 갖추세요. 85년생 자신의 취치를 점검하는 시기입니다.



50년생 경쟁하지 마세요. 62년생 부부간의 갈등이 우려됩니다. 74년생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하세요. 86년생 싸움을 할 수 있으나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51년생 과거를 반성하고 내일을 대비하세요. 63년생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75년생 자만하면 좋지 않습니다. 87년생 마음을 크게 먹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52년생 가벼운 운동이 좋습니다. 64년생 안정된 자세로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가세요. 76년생 운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88년생 자신이 생각한 바를 밀고 나가세요.



53년생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65년생 이성과의 이별수가 예상됩니다. 77년생 달도 차면 기운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89년생 옛 동창들과 어울려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54년생 강한 고집은 흉합니다. 66년생 주변을 주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78년생 이성운은 좋지만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90년생 작은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55년생 칼을 조심하세요. 67년생 오늘은 불안정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79년생 물을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91년생 업무에 잔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마세요.



56년생 생활 컨디션이 저조합니다. 68년생 골치를 앓던 문제가 우연히 해결됩니다. 80년생 사전 연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92년생 진득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57년생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길하지 못합니다. 69년생 김한운의 절정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81년생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세요. 93년생 유쾌한 하루를 맞출 수도 있습니다.



58년생 재능과 지식을 널리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70년생 실속을 취하세요. 82년생 운이 좋아진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94년생 오늘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어도 다음을 기약



59년생 귀하의 본분을 잊지 마세요. 71년생 활동을 줄이고 안정을 취하세요. 83년생 금전, 이성문제, 모두 우려할 것입니다. 95년생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김상회의四季

양기 강한 단오

일 년 중 가장 강렬한 에너지가 응집되는 날, 단오가 바로 자연의 에너지가 응집되는 날이다. 음력으로 5월 5일이고 우리 민족의 4대 명절이다. 올해는 양력으로 6월 19일이 단오다. 단오에는 숫자 5(五)와 십이지신의 말을 상징하는 오(午)가 만나면서 오화(午火)의 기운이 중첩된다. 오행으로 불에 해당하며 방위는 남쪽, 계절로는 만물이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시기로 하지와 맞물리는 시기에 자리하고 있다. 하지는 태양이 가장 높이 뜨고 낮이 가장 긴 때로, 양기가 가득 차오르는 정점의 시기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처럼 양기가 가장성한 날을 택해 그 뜨거운 기운으로 액운을 물리치고자 했다. 단오날에 양기를 다루는 풍습이 많은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단오날에는 창포 삶은 물로 머리를 감는 풍습이 있다. 창포는 생명력이 강하고 향도 강한 식물이다.

화 기운이 지나치면 사된 기운이 들어 오기 쉬운데, 향기와 양기가 강한 창포로 나쁜 기운을 씻어낼 수 있다고 여겼다. 단오에 익모초와 쑥을 채취하는 풍습도 강한 양기와 관련이 크다. 양기가 절정인 시기에 채취하는 익모초와 쑥은 강한 효능을 가졌고 이즈음에 채취한 약초는 민가에서 일 년 내내 사용했는데 자연의 기운으로 몸을 돌보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쑥은 오래전부터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식물로 여겨졌다. 익모초 또한 여성 건강에 좋은 약초로 알려져 있다. 단오에는 붉은색 글씨로 부적을 써서 붙이는 풍습도 있었다. 명리학에서 오화를 상징하는 색은 붉은색이다. 양기가 강한 붉은색으로 어둡고 습한 음기를 제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요즘도 단오 전후에 상담을 청하고 부적을 쓰는데 붉은색 부적으로 주변의 나쁜 기운과 액운을 막아보려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6시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옆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2		6		4	7
	8	5	2	9	
1					
	4		7		6 3
		1	8		
7 6		9		8	
					9
	2	9	6	3	
9	8		4		5

		1	4	7	
	4				3
6		5	9		4
		9 4	7 2		
5					9
	6 9	5 8			
1		3	2		6
	6				1
	2	7	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드의 월드퍼즐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QR코드
할인도서

5	1	9	7	2	8	6
8	2	7	9	1	6	5
6	7	2	5	8	9	1
2	8	9	6	7	1	9
7	2	6	8	9	1	2
6	9	1	5	2	7	8
9	2	8	6	2	7	9
1	6	8	7	9	1	8
2	9	7	1	8	9	6
2	8	9	1	2	6	7
2	1	6	7	9	8	5
6	9	8	1	2	7	9
1	9	2	7	6	8	5
7	2	1	6	8	5	2
8	8	9	1	2	7	9
9	6	2	7	9	1	8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93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40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